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

익산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일반 가정 10만원 · 저소득층 60만원 1월부터 가능

익산시가 가정용 난방비 절감을 위해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고효율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수 있도록 대폭 지원에 나섰다.

시는 친환경 LNG를 연료를 사용해 에너지 효율이 높아 난방비도 줄일 수 있고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적게 배출하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일반 3,500대, 저소득층 100대 총 3,600대를 교체 지원해 난방비와 미세먼지를 줄여 줄인다는 계획이다.

저녹스 보일러 교체 시에는 배기가 스스로 버려지는 열을 흡수·재활용해 일반 보일러보다 에너지 효율이 약 10% 높아 교체 시 최대 28%의 난방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 보일러에 비해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NOx)을 약 79% 적게 배출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주택 소유주와 주택 소유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세입자이며, 선정 후 저녹스보일러 교체 시 일반가구는 최대 10만 원까지, 저소득층은 최대 60만 원이 지원된다.

사업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5월 31일 까지 가능하며, 올해부터 온라인(가정용 보일러 인증 시스템) 신청으로 접수 방법이 변경된다.

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보일러 대리점 업체를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지역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는 관내 보일러 대리점 업체를 통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설치업체에서 설치 후 설치확인서와 설치 완료 사진 등 필요서류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30일 이내 보조금이 지급된다.

단 저녹스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해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될 수 있어 보일러 설치업체(대리점)에 설치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공고일 이전이라도 올해 1월부터 설치된 보일러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익산=이재춘 기자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익산 다이로움 취업박람회 높은 성공률을 보이며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 구인·구직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구인 · 구직 다 잡았다

익산 다이로움 취업박람회, 구인 · 구직 취업 성공 만족도 높아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익산 다이로움 취업박람회가 높은 성공률을 보이며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 구인·구직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우수기업부터 시 기간제까지 채용 범위를 넓혀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처음으로 개최된 다이로움 취업박람회에서 모두 14명의 청년들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들은 (주)하림산업과 (주)정도산업 등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기업에 취업하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시는 현장 면접에서 구인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기업에 구직자 연결을, 청년들에게는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

이달에는 오는 14일, 더욱 확대된 채용 규모로 청년들을 찾아간다.

우수 중견기업인 DY 이노베이트와 한국산공, 두영산업(주), (주)뉴젠파 등 8개 기업이 참여해 30명 채용을 목표로 면접을 진행한다.

특히 시 3개 부서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면접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선발된 인원은 약취 민원처리와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보조, 수목 실태조사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밖에도 취업박람회 참가자들을 위한 버스킹 공연 관람, 밸런타인데이 이벤트 포토존 공간등을 운영해 구직자와 박람회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일자리에 복지를 더해 삶을 플러스하다

군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 · 복지 · 서민금융 한 곳에서 해결

군산고용복지+센터(소장 박용훈)가 다양한 문제의 일자리와 복지를 한 곳에서 해결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고용복지+센터는 시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 · 복지 · 서민금융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기관이 한 공간에서 윈스톱(One-Stop)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2월 16일 개소했다.

군산고용복지+센터 본관은 8개 참여기관 51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고 별관에는 전북조선업도약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고용복지+센터 고용분야 참여기관

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알선, 실업급여, 직업훈련,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고용센터와 중심으로 중 · 장년층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장애인의 취업지원 및 고용장려를 담당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파견 근무하고 있다.

또한 복지 분야는 시 복지정책과에서 파견된 2명의 직원이 복지서비스 초기상담 및 안내,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 및 접수,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와 조력부수급자 자활상담,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자리 및 복지상담을 수행하고 있다.

3층, 서민금융복지센터는 재무상담, 채무조정, 복지서비스 안내 등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지원과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SK미소금융재단,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파견 근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별관에 위치한 전북 조선업 도약센터는 올부터 시가 고용위지역 지정 종료되면서 우리 지역의 조선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용활성화 지원 및 군산지역 주력산업 수요 맞춤형 지원을 통한 취업연계로 약 800명을 취업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박용훈 소장은 "군산고용복지+센터는 일자리와 복지를 한 곳에서 해결해 다른 기관을 찾아가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2월부터 군산 시티투어버스 운영 시작

군산시는 10일 관광객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군산을 즐길 수 있도록 시티투어버스 운영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공개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했으며 버스 외관디자인을 새롭게 하는 등 준비를 마치고 2월 초부터 시티투어버스 운영을 시작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여파로 관광업계가 다소 위축된 상황에서 시티투어버스는 97회 운영 1,248명이 이용했다.

군산시티투어버스는 매주 토 · 일 코

스별로 1일 1회 운영하고 있으며 탑승 시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해 군산의 대표관광지를 풍성한 해설과 함께 생생하게 전달해 호응을 얻었다.

특히, 1일 관광을 계획하고 있다면 고군산군도와 월명동 일대의 근대문화유산을 탐방할 수 있는 '고군산시간여행코스(당일코스)'와 군산의 근대문화유산과 서천의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한산보시관 등을 볼 수 있는 '군산-서천 광역코스(당일코스)'를 추천한다.

또 2일이상 체류할 계획이 있다면

군산의 주요관광지인 고군산군도, 근대문화유산 거리(시간여행마을), 금강미래채플관, 칠길마을 은파호수공원 등 많은 관광지를 짜임새 있게 한 번에 돌아볼 수 있는 '1박 2일 코스'를 경험할 수 있다.

시티투어버스의 1인당 요금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동결된 가격인 5,000원이며 부담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군산시간여행코스'는 1명 이상, '군산서천코스', '1박2일 코스'는 5명 이상 예약 시 주말 운행하며 군산시의 버스타미널(9:30)과 군산역(10:00)에서 출발한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장애인 학대 예방' 인권교육 강화

익산시가 장애인 학대 예방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 중이다.

시는 지난 10일 청북원을 시작으로 2월 한 달 동안 지역 15개 장애인 거주 시설의 400여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주춤해지고 대응 단계가 낮아짐에 따라 실시되는 대면 교육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 인권교육의 시급성을 고려해 추진되는 것이다.

이번 교육은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의 협업을 이뤄진 것으로 최근 발생한 학대 사건과 관련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추진됐다.



교육 강사는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이용준 관장과 오준규 팀장이 맡을 예정이며 인권의 이해 및 인권 감수성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한 교육 참석자는 "이번 집합교육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인권 사례 등을 접했다며,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중장년 경제문제 심리지원서비스 제공

군산시 보건소는 올해부터 경제적 문제를 겪고 있는 중장년층에게 심리상담 등 맞춤형 심리지원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사회적 단절 위험이 높은 중장년층은 부채와 직장실직 같은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큰 압박감으로 자살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 지역 자살사망자 특성 분석에 따르면 군산의 40~50대 자살사망자 비율이 44%이며, 경제생활 문제로 인한 자살이 2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보건소는 사회·경제적 단절 위험이 높은 40~50대를 대상으로 군산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군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과 연계해 우울증 선별검사 및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익산시, 한집 1명 심폐소생술 교육 시작

익산시가 '1가구 1인' 심폐소생술을 목표로 전 시민 대상 심폐소생술(CPR)교육을 운영한다.

시는 이달부터 상설교육장과 함께 찾아오는 맞춤형심폐소생술 방문교육을 병행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익산시 보건소에서는 상설교육을 진행해 시민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곳에는 교육을 예년 34대(성인30명여) 자동심장충격기 6대 규모로 1회당 최대 30인이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교육할 수 있다.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은 매주 화·수·금요일 보건소 3층 세미나실에서 운영한다.

또한 맞춤형 심폐소생술 교육은 매주 월요일에 사전에 협의한 장소로 방문해 진행한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는 전화, 방문, 홈페이지(통합예약)로 사전예약하면 된다.

정현을 시장은 "심정지 환자들을 위한 4분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심폐소생술 생활화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기반"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